

# 'KREI리포터' 충북지회 간담회 결과

## 1.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회원농가 견학
- 일 시: 2018년 8월 13일(월) 12:00~15:40
- 장 소: 충북 보은군
- 참 석: 총 27명
  - 충북지회 리포터(12명): 김경임, 김형수, 문성호, 서명희, 윤정임, 이종범, 이한늘, 임현옥, 최종구, 강문근, 서동구, 정일영
  - 보은군 사과작목반 회원(12명): 김악래, 이정옥, 김정식, 김윤기, 지덕구, 장응서, 김난희, 이재명, 배상열, 강병선, 현경수, 이상숙
  - 보은군농업기술센터(1명): 우종택 특화작목팀장
  - 연구원 관계자(2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2:00~13:30	집결 및 점심식사	한울타리 식당 (원남로 4길 6-2)
13:30~14:15	사과 관련 좌담회	병해충 피해현황 및 대책
14:15~15:30	간담회	폭염 피해현황과 대응 방안
15:30~15:40	견 학	김형수 리포터 농장 (삼원남길 77)

## 2. 주요 논의 내용

- 회원 농가 견학 및 사과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좌담회
  -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15,000㎡ 규모의 김형수 회원 사과농장을 방문함.
  - 김형수 회원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다 농업의 비전을 기대하며 퇴직해 사과 농사로 전향한 케이스로, 기술센터에서 익힌 전문 지식과 10여 년 넘는 우수한 영농경력을 바탕으로 농업마이스터(사과)

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보은군 작목반 등 사과 영농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보은군은 사과, 대추가 특산품으로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지역 리포터의 상당수도 사과를 재배하고 있음.
- 김형수 회원에게 교육 받는 보은군 사과작목반 초보회원 분들도 함께 모여 이곳 농장 현황과 재배 노하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회원 간 사과 재배 관련 고충, 병충해 대비책, 기타 영농 정보 등을 공유함.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과 우종택 팀장님을 모시고,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여름철 과원관리 요령 교육 및 농약허용물질관리 제도(PLS)에 대한 설명, 차광막, 포장재 등 과수 관련 기술센터 지원사업 등을 소개함.

### ○ '폭염 피해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현장여론 수집

- 현재 극심한 폭염으로 작물의 고온피해는 물론 탄저병 등 병충해까지 심각한 실정이다. 관정이나 차광막 설치 등 단기적 대책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폭염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사전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폭염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과의 경우 전국적인 봄 동상, 냉해 피해로 착과의 양과 질이 좋지 않다. 이에 추가로, 현재는 폭염으로 사과들이 데이기까지 한다. 폭염 피해를 받은 사과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전망이다.
- 하계전정 때 도장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는데 올해는 도장지를 제거했을 경우 햇빛을 직격으로 받는 사과가 데이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도장지를 남겨 놓은 나무의 경우 사과의 폭염피해가 덜하다. 미세 살수장치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한 폭염피해를

피하기 위한 그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

- 블루베리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예전보다 수확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폭염은 이제 매년 찾아오는 기상현상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관정시설과 같은 기반 시설을 이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설치했다면 올해의 폭염 피해가 덜했을 듯한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 앞으로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보상액 산출내역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의 조건이 까다로우 농업인들로서는 보험 가입하기가 꺼려진다.
- 재해보험 보상비율이 피해량의 30~40%를 더 낮게 책정되어 보상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
- 특히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하는 등 조건이 복잡하다. 수 많은 특약조건으로 재해 건별로 특약을 들어 놓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현 보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게다가 재해보험 품목에 블루베리는 빠져있다. 일소피해 조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를 어찌해야 할 지 걱정이다. 보험가입 조차 안 되는 품목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 폭염 기간 동안에는 양수 장비, 냉방 장비 등의 가동으로 기름과 전기의 사용이 높다. 그러나 현재의 면세유와 농업용 전기 할당 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면세유의 경우 농업용 기계로 양을 배정하기 보다는 경지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많은 농민들은 배정된 면세유의 양을 부족해한다.
-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 올해 생산되는 과수의 양과 품질이 평년에 비해 좋지 않다. 복숭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과육의 크기가 작년에 비해 현저히 작다.

- 그렇다면, 잘 키운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산품에는 가격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농산물에는 정부가 가격의 제한을 두는 것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 ○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농자재, 농기계 등등을 구매하는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불합리하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보조금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혹은 추가로 지출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보조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자출에 맡겨야 하겠다. 보조금 정책이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라기보다는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3. 이모저모

